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장서각(藏書閣)과 기록보존의식

이 배 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조선왕조는 기록문화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었던 시기였다. 기록문화의 꽃, 의궤만 보아도 기록의 섬세함과 정교성 그리고 예술성을 함께 볼 수 있다. 이러한 왕실에 관한 기록들을 모아 보존하던 대표적인 곳이 규장각(奎章閣)과 장서각(藏書閣)이다.

규장각은 1776년 정조대왕 즉위년 궐내에 설치되었다. 역대 왕들의 친필, 서화, 고명(顧命), 유교(遺敎), 선보(璿譜) 등을 관리하던 곳이었으나 차츰 학술 및 정책 연구기관으로 변화하였다.

장서각은 1908년 고종황제가 궁궐 안의 수많은 서적들을 수집해 황실 도서관의 건립을 구상하고 청사진을 그렸으나 일제의 침략으로 우여곡절을 겪었다. 마침내 1918년 창경궁과 창덕궁 사이에 건물을 짓고 조선왕조실록 등의 왕실의 귀중본을 보관한다는 의미로 장서각이라는 현판을 내걸었다.

그 후 1950년 한국전쟁 때 북한이 조선왕조실록(무주 적상산 사고본)을 강탈해 가자 이것을 대본으로 국역작업에 착수하여 '리조실록'을 간행하였다. 강탈해가는 와중에 조선왕조실록 가운데 '성종실록'(권 3-5) 한 책을 흘리고 말았는데 그 한 책이 지금 장서각에 남아 지난날의 수난사를 웅변하고 있다.

1981년 장서각의 모든 자료는 한국학중앙연구원(당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이관되었다. 현재 12만여 책의 국가왕실 도서와 4만3000여 책의 민간 사대부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다.

장서각은 국가경영 자료 뿐 아니라 왕실의 생활과 문화를 연구하는 데에는 더없이 진솔하고 재미있는 내용이 많다. 특히 선원록으로 대표되는 왕실족보는 장서각에만 있는 유일본이 대부분이며 낙선재본 고소설과 한글편지는 여성문학의 백미를 이룬다.

장서각에는 크게 두 종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소장되어 있다. 하나는 조선왕조의 각종 행사기록인 의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학서적인 동의보감(東醫寶鑑)이다.

의궤는 조선시대의 국가 및 왕실 행사를 기록한 자료로서 오늘날 영상 자료처럼 당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시각자료이다. 의궤는 역사기록물로서 뿐 아니라 한국문화를 세계적으로 전파하는 한류 콘텐츠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색감도 찬란한 의궤 중 숙종임금과 인현왕후 민비의 가례(혼례) 반차도가 주목된다. 반차도란 행사를 치를 때 참석자들의 위계에 따라 정해진 자리를 표시한 그림으로, 왕실에서 행사가 있으면 미리 반차도를 그려 국왕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준비가 철저하여 숙종과 인현왕후의 가례 때에는 무려 사전 예행연습을 세 차례나 거행했다고 전해지며 19장면으로 구성되었다.

1613년 간행된 의학서적인 '동의보감'은 한국 의학사에 빛나는 명저이다. '동의보감'의 편찬자는 전설적 명의 허준이지만 이 책은 임진왜란 이후 최대의 국책간행사업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 바탕에는 신분과 직업을 초월하는 인본정신과 박애사상, 나아가 위정자가 백성과 더불어 고락을 함께 하겠다는 여민동락의 정신이 강하게 반영되어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특히 장서각에만 소장되어 있는 '동의보감' 한글본의 존재는 이 책이 한문지식인에 국한되지 않고 백성들을 폭넓게 시혜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잘 보여준다.

한편 장서각에서는 세계기록유산의 발굴과 신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왕실족보류, 종묘기록류, 군영등록류 등이다. 특히 군영등록류는 조선시대의 군사체계와 함께 사회문화사를 대변하는 귀중본이다.

장서각 도서 가운데 군사관련 자료가 약 150여종 700책 정도이며, 이 가운데 60종 555책이 군영등록이니 꽤 많은 분량이라 할 수 있다. 특별히 왕실호위와 수도경비를 담당한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등 삼군문 자료가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장서각 군영등록은 조선후기 군사문제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오군영 제도는 물론 당시 군인들의 생활모습이나 처우까지 보여주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선조들의 치밀하고 책임 있는 기록보존의식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다. 앞으로 고문헌의 보존처리와 현대적 활용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다. 아울러 다른 나라와 차별성을 가진 고품격의 전통문화 콘텐츠는 세계인을 감동시키면서 지속적으로 한류 3.0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의료칼럼

적절한 예방 접종과 검진

김 동 규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원장

지난 겨울, 평년에 비해 춥지 않았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신종플루와 독감이 활개를 쳐 병원은 환자들로 넘쳐났다. 그 와중에 비교적 마음 편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이들은 일찍이 독감 예방주사 등 예방접종을 서두른 가족들이다.

100세 시대의 개막은 비단 질병을 치료할 의학 기술의 발달만이 아닌 요람에서부터 시작되는 예방접종과 성장에 따른 꾸준한 검진이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국가에서 지원하는 필수예방접종 항목이 더 확대된 만큼 세대별 각양각색의 맞춤 접종과 검진에 대해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09년 3월부터 시행된 영·유아 예방접종 국가지원 사업은 2012년에는 10종으로, 2013년에는 11종으로 확대됐다가 올해는 1회 접종비 7만원에 달하는 일본뇌염 생백신까지 지원 항목에 포함함으로써 총 12종의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필수 접종 실시 항목은 결핵, B형 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폴리오, 홍역·풍진·유행성이하선염, 수두, 일본뇌염 등이다. 무료 예방접종은 지정의료기관에서만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질병관리본부가 운영하는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과 예방접종 일정을 확인한 후 아기예방접종 수첩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이 외에도 로타 바이러스, 폐구균 예방접종 등 선택 접종도 다양하게 있으며, 보호자의 의지에 따라 유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수시로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를 방문해 때에 맞춰 예방접종함으로써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을 질병으로부터 지켜내도록 하자.

신체발육이 왕성하게 진행되는 10대는 가장 건강하게 여겨지는 시기이기도 하여 건강관리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운동이나 학습 시간에 아이들의 신체 접촉이 빈번한 만큼 각종 독감이나 유행성 질병 예방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또 소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검사를 실시해 비만 관리를 이 시기에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20대부터는 해마다 기본 건강검진이 권장된다. 이 시기는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가정에서 독립하는 등 환경 변화가 커지면서 식생활은 불규칙해지고 운동 부족으로 체지방이 증가한다. 따라서 남성은 혈압과 위내시경, 갑상선, 흉부 X선 검사가 적합하고 여성은 기본검진과 필요에 따라 자궁경부 및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30대 남녀는 기본검사를 바탕으로 불편감을 느끼는 특정 부위와 관련한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가족 중 갑상샘기능항진증 등 갑상샘 관련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 또 40세 이상 남성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6개월~1년 간격으로 간암 검사, 1년 간격으로 폐암 검사가 권장되며, 40세 이상 여성은 1년 간격으로 갑상선과 폐암, 자궁근종 검사를 권유한다.

40대는 위암과 간암 검진이 필수다. 신체의 노화가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하는 40대부터는 당뇨병과 고지혈증, 성기능 장애, 관절염, 심혈관계 질환뿐 아니라 위암과 간암의 발병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세심하게 스스로 몸을 관찰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50대부터는 대장암은 5년에 한 번씩(대변검사는 매년 실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실시해 대장 건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이 시기부터는 퇴행성 관절염이나 관절 류머티즘이 가장 주의해야 할 건강의 적신호다. 특히 관절 류머티즘을 방치하면 체내 주요 장기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생활에 불편감을 주는 관절 통증을 느낄 때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 관절염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또 소홀해지기 쉬운 겨울철 독감 예방주사도 반드시 접종하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국가에서 지정한 나이별 표준 예방접종표를 참고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기고

학교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오 인 성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청소년이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면 사회의 어두운 곳으로 몰리기 쉽다. 용돈 마련을 위해 범죄 유혹에 빠지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일탈하는 경우를 보면 안타깝다. 이러한 문제는 학생들의 성장 환경에서 비롯되고 있다. 성장기에 가정과 학교로부터 적절한 애정과 보살핌을 받지 못해 심신의 불균형 상태가 심화되면 학교 밖으로 내몰리기 마련이다.

2012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초중고생 6만8200명, 광주·전남에서 약 3900명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났다. 떠난 학생의 절반은 학교 부적응이 이유였다. 결국 학교가 소외된 학생을 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성할 수밖에 없다.

나주의 경우, 학생 상당수가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환경에 놓여 있고 일부는 정서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 2013년 12월 기준으로 교육복지 851명, 결식지원 46명, 복지시설 수급자가 39명이며 다문화가정 427명, 정서행동특성 관심군 113명, 특수교육 109명, Wee센터 상담 250명, 기초학력 미달 17명 등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학생은 1852명이다. 유초중생 6531명의 28.4%가 관심대상군인 것이다.

그러나 사회안전망만으로 교육적 취약 학생을 건강하고 바르게 키워내기는 어렵다. 제도와 더불어 온기 있는 교육환경이 필요하다. 교직원이 나서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교장 선생님께서 나를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 또는 급식실 조리사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느끼는 학생은 더 밝고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빌어 한 가지 제안을 해본다.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직원 모두가 나서서 결연을 맺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형식적인 결연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묶어, 어른이 먼저 다가가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학생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분위기의 학교를 만들자는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낼까에 관한 고민은 온전히 학교 몫이다. 학교마다 환경이 다르고 학생의 여건이나 요구가 그 수만큼 다양하기 때문이다. 교직원과 학생 간 사랑의 결연은 자신의 학교를 소중하게 여기는 계기가 되고, 그 사랑을 경험한 학생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으로 자리할 힘을 지니게 된다.

아픔이 있고 사랑에 허기진 학생을 감싸고 보듬어 바른 성장을 이끄는 것,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겠는가? 학교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곳이 돼야 한다. 머리뿐만 아니라 같은 무게로 가슴까지 있는 학교를 만들어, 선생님을 밀어내거나 학교를 떠나려는 학생을 어미 닭이 병아리 품듯 안아줘야 한다.

김춘수 시인의 '꽃'의 의미를 학교교육의 눈으로 새겨본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됐다. 그리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름 불리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다. 관계는 서로 간의 관심을 끈으로 한다. 무의미했던 존재가 관심이라는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 있는 존재로 변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이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도 누군가와 특별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학교가 의미 있는 곳이 되게 하고,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 학교에서 따뜻하게 그의 이름을 불러 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봄이다. 가슴 따뜻한 학교의 품에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롯한 꽃으로 피어나, 새 학기 교정이 꽃동네가 되었으면 좋겠다. 소외된 학생이 없는 학교, 모두가 행복한 학교의 밑받침이다.

깨끗한 선거 풍토, 유권자가 만들어 가야 한다

오는 6월4일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참다운 민주주의는 공명선거가 정착될 때 가능하며, 선거가 올바르고 깨끗하게 치러질 때 공정선거라 할 수 있다.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후보자에게 동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돈 안 쓰는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선거부정 행위자에 대한 지도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이제는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선거법 위반 사례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계모임을 비롯한 각종 행사를 가장한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선거 부정행위와 컴퓨터 통신상의 후보자 비방과 흑색선전과 같은 음성적인 불법 선거운동 사례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유권자들의 의식전환이 없이는 민주발전도 정치발전도 있을 수 없으며 선거부정으로 인한 피해자는 '나'라는 올바른 주인의식을 확립해야 한다.

후보자는 법을 지키며 정정 당당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는 양심에 따라 누가 주민들을 대표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후보자인지를 깊이 생각하여 투표에 빠짐없이 동참해야 한다.

법을 지키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투표로서 심판해야 선거부정을 영원히 추방할 수 있고 참다운 민주주의를 꽃 피울 수 있다. 또한 우리 생활 주변에서 발생되고 있는 선거법 위반행위는 발견 하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제보를 하면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받고, 사안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선거부정이 영원히 추방되는 날 선진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진정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재호·바른선거시민모임 담양군지회

社 說

잇따르는 FTA, 농·축산업 대책 마련하라

한국과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축산 농가들이 벼랑 끝에 서게 됐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와 백색가전 등 공산품의 경우 수혜를 입게 되지만 축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FTA 타결로 국산 자동차와 가전제품 및 타이어에 대해서는 2~5년 뒤 관세가 폐지된다. 이로써 광주에 소재한 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 금호타이어의 캐나다 수출은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남지역 한우 및 돼지 사육 농가들은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쇠고기의 경우 관세 40%를 15년 안에, 돼지고기(22.5~25%)는 세부 품목별로 5년 또는 13년 안에 점진적으로 철폐되기 때문이다. 사료 값 부담과 판로 부진으로 애를 먹고 있는 축산농가에 직격탄이 아닐 수 없다.

경제적인 큰 틀에서 선진국과 속속 FTA를 체결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공산품을 살리기 위해 대책 없이 농·축산업만 희생양으로 삼는 건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뿐이다.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사회문제와 함께 외국산 먹을거리의 식탁 잠식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붕괴가 우려되는 농·축산업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협정과 관련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장 필요한 것은 우리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충과 사육 환경 개선 그리고 사료값 안정화 등이다.

자유무역협정이 경제 전반의 성장을 위한 것인 만큼 농·축산업 분야에 활기를 불어넣을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FTA로 수익을 내는 산업에서 재원을 마련해 피해 분야를 지원하는 '이익 공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 중3 학력 전국 최하위권이라니

광주·전남지역 중3 학생들의 우수학력 학생 비율과 평균점수가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광주는 고교생 학력마저 크게 저하돼 '실력 광주'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연구소가 11일 내놓은 '2012 중3 학업성취도 평가 시·도별 심층 분석' 자료에 따르면 광주 중3 학생들의 과목별 성적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국어 16위, 수학 10위, 영어 9위로 평가됐다.

광주는 국어에서 '우수학력' 비율이 26.8%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낮았으며 전국 평균 31.1%에도 미치지 못했다. 영어도 28.6%로 세종(14.8%), 인천(25.3%) 다음이었고, 수학 역시 17.5%로 세종(7.7%), 인천(16.5%), 울산(17.1%)을 제외하곤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전남지역 중3 학생들도 국어 23.6%, 수학 11.8%, 영어 19.6%로 도 단위 지역 중 가장 낮았다.

문제는 이들 주요 과목 성적이 2~5단계까지 계속 하락 추세인데다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상위 10% 학생의 점수 평균도 바닥권이라는 점이다. 우수학력 비율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 고교 및 대학 진학의 질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성적 저하는 교육의 안정과 균형보다는 급격한 정책 변화가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교육청이 인성교육 등을 이유로 방과후 자율학습과 심화학습, 보충학습 등을 과도하게 규제해온 데 있다. 교장단이 학교에 학습 자율권을 달라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도 바로 학력 향상에 있다.

현재 정치·사회 등 전 분야에서 지역 출신 인재 등용이 극히 미진하고, 경제 잠재력 또한 최하위권인 상황에 학력마저 뒤진다면 희망을 찾기 어렵다. 교육당국은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교장단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건축 이야기

영국 총리를 지낸 윈스턴 처칠은 "사람은 건축을 만들고 건축은 사람을 만든다."고 했다. 건축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리하게 지적한 말이다. 건축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인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보면 재미있는 게 많다.

가령 '백화점에는 왜 창문이 없을까' 의문을 가져 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창(窓)의 목적은 채광과 환기다. 그러나 백화점은 이보다는 장사를 목적으로 지은 시설이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단 고객이 들어오면 오랜 시간 머물게 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백화점의 중요한 전략이다. 낮인지 저녁인지 알 수 없도록 해서 주부들이 쇼핑을 중단하고 서둘러 집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은행의 '천정'(天井)이 일반 건물에 비해 더 높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은행은 돈이 거래되는 곳이기에 늘 도난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데 보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아래쪽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천정을 높인 것이다.

건물에도 헤어스타일이 있다. 건물 모양은 지붕의 형태에 따라 매우 달라진다. 추운 곳일수록 뾰족한 지붕이 많고 더운 곳일수록 완만한 지붕이 많다. 눈이 많이 오는 나라의 지붕 경사가 매우 가파른 것은 눈이 지붕에 쌓이지 않고 빨리 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독일이나 알프스 지방의 이국적인 건물도 실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몸부림이라 봐야겠다.

우리 한옥에서 고드름이 맺히는 부분은 추녀일까 처마일까? 많은 문인들이 '추녀 끝 고드름'으로 잘못 쓰고 있는데 처마가 맞다. 추녀는 건물의 전면과 측면의 모서리 부분을 말하며 그 끝이 들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고드름이 매달릴 수 없다. 추녀 끝에 매달려 있는 것은 풍경(風磬)이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알게 된 것은 이 지역 출신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건축사 조원용의 '건축, 생활 속에 스며들다'(창의 체험)란 책 덕분이다. 건축을 모르는 그 누구라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생활 상식이 담겨 있다. (참고로 저자인 조 씨의 강연이 오늘 오전 10시 남광주농협에서 있다고 한다.)

/이홍재 논설고문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